

## 전체 주제:

### 하나님의 뜻

(토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 하나님의 뜻 —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성경: 히 2:10-11, 12:10, 14, 엡 1:4-5, 5:26, 살전 4:3상, 5:23-24, 요 17:17

- I.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거룩하신 분 곧 속된 모든 것과 다르고 구분되시는 분이신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 살전 4:3상, 벧전 1:15-16, 엡 1:4-5, 5:25-27.
- II.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은 거룩하게 하심이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임을 보여 준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화하시는 것’이다.
  - A. 영원 과거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서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아들의 자격을 위해 혹은 결과적으로 아들의 자격을 갖도록)’ 선택받았다 — 엡 1:4-5, 계 21:2, 9-11.
  - B.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으로서, 많은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신다 — 히 2:10-11.
- III.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하심에는 세 방면이 있다.
  - A.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한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믿기 이전에 일어난다 — 벧전 1:2.
  - B.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위치적인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믿을 때 일어난다 — 히 13:12, 9:13-14, 10:29.
  - C. 그 영의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 살전 5:23-24, 롬 15:16하, 6:19, 22, 비교 5:10, 계 22:14, 벧후 1:4.
- IV.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경륜의 중심이며 신약의 계시의 중심 사상이다.
  - A.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붙잡아 주는 노선이며, 이 신성한 경륜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써,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 B.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붙잡아 주는 노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일의 각 단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요 17:17, 엡 5:26-27, 고전 6:11, 12:3하, 히 12:4-14, 롬 8:28-29, 엡 4:30, 살전 5:19, 계 2:7상, 시 73:16-17, 25-26.
    1. 찾는 거룩하게 하심, 곧 초기의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회개하는 데 이르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 벧전 1:2, 눅 15:8-10, 17-21, 요 16:8-11.
    2. 구속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것이며, 우

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다 — 히 13:12.

3. 거둬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의 시작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곧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새 창조물로 만든다 — 요 1:12-13, 고후 5:17, 갈 6:15.
  4. 새롭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의 연속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혼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새 창조물의 일부가 되게 한다 — 롬 12:2하, 6:4, 7:6, 엡 4:23, 겔 36:26-27, 고후 4:16-18.
  5.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심, 곧 매일의 거룩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요소로 우리를 신진대사적으로 재조성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한 부분인 새로운 조성체로 만든다 — 고전 3:12, 고후 3:18.
  6.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룩하게 하심, 곧 형태를 짓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 지어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게 한다 — 롬 8:29.
  7.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완결하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몸을 변형시킴으로 우리의 몸을 구속하여, 우리를 영광 가운데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게 한다 — 빌 3:21, 롬 8:23.
- C. 신성한,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다 — 롬 15:16하, 8:4.

**V. 우리가 교회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게 해 주셔야 한다 — 살전 3:13.**

- A.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마 9:4, 히 4:12, 요 14:1, 16:22, 행 11:23)와 우리의 영의 한 부분인 양심(히 10:22, 요일 3:20)이 더해져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 B.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 곧 생명의 ‘스위치’이다. 마음이 올바르게 없으면 영 안에 있는 생명은 방해를 받고, 생명의 법은 자유롭게, 장애 없이 작용하지 못하여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도달하지 못한다. 비록 생명이 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 큰 능력은 우리의 작은 마음의 통제를 받는다 — 잠 4:23, 마 12:33-37, 비교 겔 36:26-27.
- C.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타고난 출생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주님과와의 관계에서 변하기가 쉽다 — 비교 딤후 4:10, 마 13:18-23.
- D. 타고난 사람의 생명에 따르면, 마음이 견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쉽게 변하기 때문에 조금도 신뢰할 수가 없다 — 램 17:9-10, 13:23.
- E.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나무랄 데가 많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나무랄 데 없는 마음이다 — 시 57:7, 108:1, 112:7.
- F.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한 번 만에 영원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 겔 36:26, 고후 4:16.
- G.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영에 의해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상태, 곧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하나님께 점유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진 상태로 견고하게 되며 건축될 수 있다 — 딤후 3:5, 롬 6:19, 22, 고후 3:16-18, 마 5:8, 시 51:10-12.

H.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시는 영의 지속적인 새롭게 하심에 의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견고하게 되는 동안에,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어 가며, 신성한 본성의 거룩함을 지닌 거룩한 성이 되어 간다 — 계 21:2, 요일 5:11-12, 벧후 1:4.

VI.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 살전 5:23-24.

A. 화평의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때 화평이 온다. 우리가 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룩하게 될 때,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사람과도 화평하게 된다 — 살전 5:23, 13, 살후 3:16.

B.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갈망하신다. 우리가 거룩함이신 그분을 기꺼이 추구하며 이 일에서 그분과 협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다(벧전 1:15-16).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히 12:14).

C.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본질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본성에서 우리를 그분과 완전히 똑같이 만드신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온전하게 보존하신다 — 살전 5:23.

1.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망쳐졌고, 혼은 오염되었으며, 영은 죽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서 우리의 온 존재는 구원받고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된다.

2.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죽게 하는 모든 요소에서부터 우리의 영을 보존하시고(히 9:14), 천연적이고 낡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의 혼을 보존하시며(마 16:24-26), 죄로 인해 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보존하신다(살전 4:4, 롬 6:6).

3.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시고 철저히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다.

4. 양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하신다. 즉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지키신다.

5.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실지라도, 우리는 자신이 보존되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계속해서 성령의 적시심 안에 둬므로써,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협력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살전 5:12-24.

VII. 하나님과 협력하여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심 안에 보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계속 살아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딤후 4:6-7.

A. 우리의 영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계속 살아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죽어 있는 상태에 버려두게 될 것이다 — 딤후 1:6-7, 비교 유 19.

1.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을 보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우리의 영을 계속 살아 있게 하고 죽음에서 건져 내는 것이다 — 살전 5:16-18.

2.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영을 죽이는 상황에서 분별되어야 한다 — 비교 민 6:6-8, 고후 5:4.

3.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

통해야 한다.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 — 요 4:24, 롬 1:9, 빌 2:1.

- B. 우리의 영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모든 더러움과 오염에서 지켜야 한다 — 고후 7:1.
- C. 우리의 영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갖도록 훈련해야 한다 — 행 24:16, 롬 9:1, 비교 8:16.
- D. 우리의 영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며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안식을 주의해야 한다 — 말 2:15-16, 롬 8:6, 고후 2:13.

**VIII. 하나님과 협력하여 우리의 혼을 거룩하게 하심 안에 보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인 마음의 주요 세 ‘동맥’, 곧 우리의 혼의 부분들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끗이 해야 한다 — 비교 시 43:4, 느 8:10, 요일 1:4, 렘 15:16.**

- A. 우리의 혼이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야 하고(롬 12:2), 우리의 감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받고 적셔져야 하며(엡 3:17, 19), 우리의 의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굴복되고 그분을 주입받아야 하고(빌 2:13),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막 12:30).
- B.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인 마음의 주요 세 동맥에 막힌 것을 제거하는 길은 주님께 철저히 자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 동안 주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우리를 빛 안으로 완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에 따라 우리의 결점과 실패와 패배와 실수와 악행과 죄들을 자백해야 한다 — 요일 1:5-9.
  - 1. 우리의 생각이라는 동맥에 막힌 것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생각하는 방식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을 자백해야 한다.
  - 2. 우리의 의지라는 동맥에 막힌 것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반역의 세군들을 자백해야 한다.
  - 3. 우리의 감정이라는 동맥에 막힌 것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천연적인 방식과 심지어 육체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을 표현해 온 것을 자백하고, 또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랑해야 할 것은 미워하고 미워해야 할 것은 사랑한 것을 자백해야 한다 — 비교 계 2:4, 6.
  - 4.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인 마음의 주요 세 동맥에 막힌 것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가 살아났고 매우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IX. 하나님과 협력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됨 안에 보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수행하기 위해 몸의 생활을 실행할 수 있다 — 롬 12:1-2, 살전 4:4, 5:18.**

- A. 우리의 타락한 몸인 육체는 사탄과 죄와 죽음의 ‘집회 장소’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집회 장소’인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성전이다 — 롬 6:6, 12, 14, 7:11, 17-25, 8:2-3, 고전 6:15, 19.
- B.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다 — 고전 6:20.
- C.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에서 확대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빌 1:20.
- D. 우리의 몸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혼인 옛사람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죄의 몸은 그 직업을 잃고 실직자가 될 것이다 — 롬 6:6.

- E. 우리의 몸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무엇이든 죄악된 것에는 우리의 몸을 드리지 말아야 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의에게 노예로 드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 — 롬 6:13, 18-19, 22, 살전 4:3-5.
- F. 우리의 몸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거룩한 성이 되려는 우리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아야 한다 — 고전 9:27, 계 21:2.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믿는 이들을 미리 정하심으로써, 거룩하게 하시려고 믿는 이들을 선택하신 것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분배하심

영적인 축복들의 첫 번째 항목은 아버지의 선택하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절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영어 회복역 참고). 그 대신 이 절들은 우리를 미리 정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한다(영어 회복역 참고). 5절의 ‘미리 정하다’는 말은 4절의 술어인 ‘선택하다’를 수식한다. 그러므로 미리 정하심과 선택하심은 두 가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심으로써, 즉 우리에게 표시해 두심으로써 우리를 선택하셨다. 미리 정한다는 것은 표시해 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들의 자격을 위해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은 그들로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사람이 아들을 얻으려면 자신의 생명을 전달하여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러한 전달이 분배하는 것이다. 생명을 분배하지 않고는 결코 자녀를 낳을 수 없다. 하나님의 분배하심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의 분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완전히 계시된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영접되시기 위해 오셨다.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와 권리가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와 권리는 우리 안으로 분배된 바로 그 신성한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이 생명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유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분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에 의해 그분의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이 되도록 거룩하게 하신다. 그분은 아들의 자격을 위해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죄 없는 완전함이 거룩함이라고 말했지만, 형제회는 그것이 오류임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거룩함이나 거룩하게 됨은 죄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옮겨지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 예수님은 금이 성전에 의해 거룩하게 되며(17절), 예물이 제단에 의해 거룩하게 된다고 말했다(19절). 금이 시장에 있었을 때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금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었을 때, 그것은 위치가 바뀌었으므로 거룩하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물의 위치가 범속한 장소에서 거룩한 장소로 바뀔 때, 그것은 거룩하게 된 것이다. 위치적인 거룩하게 됨에 관한 형제회의 가르침은 성경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거룩하게 됨에 관한 진리의 전부는 아니다.

거룩하게 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고 그들 안에서 일하

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의도하셨고, 그것을 위해 하나의 경륜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 다음에 그 영께서 오셔서 선택받은 이들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으실 수 있게 하셨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되었고, 그다음으로 이 거룩하게 됨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낳으심으로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한다. 그다음에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심으로써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한다. 따라서 거룩하게 하심은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이다. 먼저 그 영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나님에 의해 태어날 준비가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과 아들이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요소가 우리 안에 분배될 필요가 있다.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시며, 그분은 이 거룩한 본성을 거룩한 요소로 삼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영한 동번 찬송가 841장(찬송가 381장) 1절은 “주의 신성으로 날 거룩케 해/ 주의 부활 내게 승리 주시네”라고 말한다. 그분의 거룩한 본성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분의 부활 능력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도록 할 때, 이 거룩한 본성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요소가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는 것과 우리를 낳으시는 것은 그분의 분배하심이다.

###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아들의 자격을 위한 거룩하게 됨

우리는 거룩하게 됨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부담이다. 우리는 아들의 자격을 위한 거룩하게 됨이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한 번 만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본성과 거룩한 생명을 우리 존재 안으로 더 많이 넣어 주시도록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자라려면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 더하여 영양분이 필요하다. 어린 아기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다. 바꾸어 말해서, 부모는 그들의 인간 생명을 이 아이 안으로 분배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어머니가 매일 아기에게 음식을 먹일 때, 아기의 인간 생명은 영양분으로 인해 자란다.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명도 동일하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셨다. 이제 우리는 영양 공급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랄 필요가 있다. 우리의 출생은 시작이지 졸업이 아니다. 우리는 출생 후에 그 영 안에 있는 충분한 영양분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생명,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서 자랄 필요가 있다.

거룩하게 됨과 아들의 자격은 모두 항상 그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이 거룩하게 됨을 영적인 축복, 곧 그 영에 의한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그 영에 의해 살고, 그 영을 따라 행동하기를, 곧 전적으로 그 영에 의해, 그 영과 함께, 그 영을 따라 처신하기를 배워야 한다(롬 8:4). 우리가 그 영에 의해 처신하고 그 영을 따라 행동하는 한,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우리에게서 얼마간의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 가지 방식, 곧 거룩한 말씀을 읽음, 영적인 말씀을 들음, 집회에 나옴으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영양 공급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나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생명이 자라는 길에 있지 않은 것을 염려한다. 만일 우리가 장거리 운행을 한다면, 우리는 고속 도로를 찾아서 그 위에서 달려야 할 것이

다. 일단 고속 도로에서 달린다면, 우리가 취하는 방향을 주의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올바른 고속 도로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달린다면, 우리의 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방향으로 성장의 길을 달려야 한다. 우리가 신약의 가르침에 따라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올바른 길을 보기 위해서는 여전히 어떤 계시가 필요하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영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를 그 영 안에 두어야 하며, 종일토록 그 영을 따라 행하고, 행동하며, 움직여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신성한 생명 안에서 지켜지도록 반드시 그 영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 많은 경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너무 자유롭고 규제가 없다. 다른 이들에게 말할 때는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지만,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는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자신의 취향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 영을 따라 말하고 행함으로써 규제되고 교정되고 조절되어야 한다.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그 영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도록 우리를 낳으신 분도 그 영이시다(요 3:6).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영에 의해, 그 영 안에서, 그 영과 함께하는 문제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회복 안에 있어 온 수많은 성도들이 자라지 않은 것을 볼 때 염려스럽다. 비록 그들은 집회하고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듣지만, 그 영을 주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할 때 그 영을 주의하는 대신 자유롭게 한담하고 다른 이들을 비판한다. 비록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회복을 사랑하고 교회생활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영을 조금도 주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 영을 주의해야 한다. 오늘날 거룩하게 됨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과 관련되신 이 영은 우리 영 안에 계신다(롬 8:16, 고전 6:17). 만일 우리가 그 영을 주의하기를 갈망한다면, 먼저 우리의 영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자녀를 화나게 하여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엡 6:4). 우리는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 흔히 그들을 노엽게 한다.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의 영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동의하는가, 혹은 우리가 감정을 따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감정을 부인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를 내려고 할 때, 그 영은 “네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지금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 그것은 일종의 거룩하게 하심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영께서 계속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말씀의 한 부분을 읽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양공급을 받으며, 영적 자양분으로 인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란다. 만일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영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즐거운 가정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도 그분의 아들의 자격과 그분의 가정을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영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형제들은 벡타이를 살 때 자신의 취향대로 사서는 안 된다. 자신의 취향대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벡타이 하나를 살 때에도 우리의 영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 우리의 영이 뭐라고 말하는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는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실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성도가 신언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우리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말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그렇지만 어떤 성도들은 집회에서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 집회에 나오지만 뒤에 앉아서 침묵을 지킨다.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인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집회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기를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집회에 나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수년 동안 집회에 나와도 주님을 위해 조금도 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거듭났고, 주님을 사랑하고 회복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지만, 전혀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확신하건대, 만일 당신이 이러하다면 당신은 결코 주님 안에서 자라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영을 주의해야 한다. 당신의 침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러면 당신의 영이 당신에게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당신의 영은 당신에게 완고하다고 말하고, 교회를 따라 주님을 위해 말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영을 주의한다면, 신성한 영은 보다 많은 것들을 당신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얻으실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은 당신의 영을 주의하면서 집회에 나올 것이다.

당신은 심지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집회에서 주님을 위해 말하지 못했던 것을 돌이킵니다.”라고 자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온 교회가 기뻐할 것이다. 그런 후로 당신이 계속해서 말할 때,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셔서 당신으로 더욱더 말할 것이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은 생명의 성장 속도가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 같음을 볼 것이다. 반년 안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성장할 것이고, 훨씬 더 거룩하게 되어 훨씬 더 아들의 자격에 이를 것이다. 당신은 생명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롬 8:17). 그럴 때 당신은 교회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 영의 풍성한 공급을 모든 회중에게 공급하고 전하는 공급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이 나의 부담이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이 한 번 만에 영원히 성취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들의 자격을 위한 거룩하게 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아들의 자격 안에서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영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 영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거듭났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반드시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 이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영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많다. 그분은 여전히 더욱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랄 때 아버지는 즐거운 가정을 얻으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을 주의하고 그 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한다면, 우리는 아들들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상속받는 상속자들, 성숙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즐거운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축복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부터 출발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점점 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안에 들어가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가 되어야 한다.

### 결론의 주(註)

(1) 하나님의 거룩한 요소를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겠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실 필요가 있다.

(2) 믿는 이들을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심에 있어서 아버지의 분배하심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결국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여, 생명과 본성에서 그들을 그분과 똑같이 거룩하게 하고,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지만, 그들에게 그분의 유일한 신격은 없다. 이것이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는(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것이 신성한 경륜의 중심이요 신약의 계시의 중심 사상이다. 이러한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롬 15:16)에 의해 수행된다. 신성한 아들의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갈 4:6)이신 거듭나게 하시는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과정을 거친 삼일성의 분배와 초월한 그리스도의 전달의 결과, 25-34쪽)

###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

우리는 또한 거룩하게 하심의 진리에 관하여 보다 전진된 어떤 것을 보았다. 이것은 지난 칠십 년 동안 회복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의 큰 주제가 되어 왔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른 이들의 저술들 안으로 들어가 이것을 연구하고 조사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본 것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지금 199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는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온전한 내재적인 의미를 보았다. 내가 이것을 본 것은 애너하임 교회가 1975년에 전한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를 복습하고 있을 때였다.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는 매우 철저했지만, 그 당시에 나는 아직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이 아들의 자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지 못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신다고 말한다. 그다음에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이들에 대해 말한다. 내가 이 두 절을 상고하고 있을 때, 내 눈이 열려서 거룩하게 하심이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빛이다.

이것을 보았을 때, 나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대한 보다 온전한 이해에 이르렀다. 4절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5절은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두 항목을 함께 둘 필요가 있다. 우



리는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은 거룩하게 됨이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임을 다시 보여 준다. ‘...에 이르도록’에 해당하는 헬라어 전치사는 매우 심오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결과를 낳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하게 됨은 아들의 자격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 앞의 결론의 주(註)에서는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이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지적한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사상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죄 없는 완전함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단지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것만도 아니다. 그것은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이며, 아들의 자격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그것을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영 자신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삼일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다.

이제 나는 거룩한 말씀에서 계시되었듯이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온전한 조망을 제시하고 싶다. 하나님은 갈망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에 근거하여 목적이 있는 뜻을 세우셨다. 이것이 그분의 영원한 경륜, 곧 ‘오이코노미아(oikonomia)’이다. 이 경륜은 아버지께 의해 세워졌고, 아들에 의해 성취되었으며, 그 영에 의해 수행되고 우리에게 적용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 수행된다.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은 네 단계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한다.

### 찾는 거룩하게 하심

그 영에 의한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의 첫 번째 단계는 그분의 찾는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것은 그 영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것이다. 찾는 거룩하게 하심은 누가복음 15장의 두 번째 비유에서 온전히 계시된다. 거기서 그 영은 등불을 비추고 쓸면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에 비유되신다(8절). 그녀는 이 잃어버린 동전을 세심하게 찾는다. 결국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사실상 잃어버린 동전은 탕자였다. 그 영의 찾으심과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탕자는 깨어났다.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17절).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회개하기로 결심했다.

요한복음 16장은 계속해서 이 찾으시는 영께서 또한 책망하시는 영이신 것을 보여 준다. 그분은 모든 잃어버려진 죄인들을, 아담 안에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하여, 사탄을 위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8-11절). 사람의 온전한 회개는 찾으시고 책망하시는 영께서 일하신 결과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그 영께서 이렇게 찾으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회개하는 죄인들 위에 피를 뿌리는 것 이전의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찾는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의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전의 일임을 보여 준다. 사실상 우리의 회개와 믿음은 찾으시는 영, 책망하시는 영으로 인한 것이었다. 우리는 죄 안에서 잃어버려졌으며 죄인들의 무더기 가운데 있었지만, 찾으시는 영께서 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셨다. 그 결과 우리는 깨어났고, 회개했고,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그분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다. 이것은 영원 과거에 있었던 우리 아버지의 선택하심과 미리 정하심에 더하여 그 영께서 시간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책망하신 결과였다. 이 찾으심, 이 책망하심이 찾는 거룩하게 하심이다.

### 거듭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동일한 영, 곧 찾으시는 영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다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 영으로 거듭났을 때(요 3:5),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다(롬 8:16, 딤후 4:22).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찾으시는 영께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였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되돌리셨다. 우리는 회개했고 주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영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더욱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은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의 두 번째 단계인 거듭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마치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를 우리 위에 두셨다(눅 15:22, 히 13:12).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 지금 우리에게만은 밖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피 곧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용서받았고, 우리의 영은 거듭났다. 그 영의 거듭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났다(요 3:6).

##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심

거듭남 이후에,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의 다음 단계는 그분의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것은 우리의 혼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두 근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혼과 우리의 몸으로부터 온다.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다. 거룩하게 하시는 영은 우리의 영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에 이어서, 우리의 혼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수행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거듭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혼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영의 더 전진된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 변화는 새롭게 됨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룸을 함축한다. 거룩하게 하시는 영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일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변화가 주 영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이것은 그 영의 변화시키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일이라는 강한 증거이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거룩하게 하시는 영의 변화시키심은 먼저 우리의 문제 많은 생각을 새롭게 한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요소가 우리 안으로 더해져서 우리의 낡은 요소를 내보내고 우리를 새로운 요소로 대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일종의 신진대사로서 우리 안에 신진대사적인 변화의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의도하는 것에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 성경은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의 더 전진된 단계인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찾는 거룩하게 하심과 거듭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새롭게 됨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룸을 포함하는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

##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우리의 온전한 변화는 어느 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때 완성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영의 일일 것이다. 우리의 혼 외에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것은 우리의 가련하고 비천한 몸이다. 정욕과 약함과 질병과 죽음이 우리의 타락한 몸 안에 함께 존재한다. 우리의 몸은 참으로 비천하지만, 어느 날 이 몸은 영광스럽게 되고 변형될 것이다(빌 3:21).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우리의 혼은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정욕이나 약함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고 바뀔 것이다. 이것이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이다.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의 이 네 단계, 곧 찾는 거룩하게 하심, 거듭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심,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이 모두 일어날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자격을 가질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능히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나비가 아직 고치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우리는 고치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걷지 않고 날아다닐 것이다. 이것이 완결된 거룩하게 하심이다.(과정을 거친 삼일성의 분배와 초월한 그리스도의 전달의 결과, 40-46쪽)